#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

#### 3. 톤 호텔 로젠크란츠

공항에서 출발한 버스는 한적한 시골길 을 달려 베르겐 시내로 향했다. 나는 금 발머리 아가씨 운전기사 바로 뒤에 앉아 눈앞에 펼쳐지는 노르웨이의 산천과 집 들을 내다 보았다. 겨울이라 그런지 한적 하고 추워 보인다. 버스는 속도를 내지 않 고 천천히 달려갔다.

벌판에 눈이 하얗게 내린 도로를 지나 간다. 노르웨이 집들은 빨강과 노랑으로 색칠하고 목재로 반듯하게 지은 것이 사 진에서 보던 모습과 정말 똑같았다. 그리 고 눈이 쌓여 하얀 세상에 앙상한 겨울

나무들이 까만 선을 그리며 눈내린 풍경을 장식하고 있었 다. 나는 베르겐의 풍경이 의외로 플랑드르 화가 얀 브뤼겔 의 그림과 무척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. 지리적으로 멀지 않아 풍경이 비슷한 것일까? 하지만 어딘가 환상적이고 악 마적이기까지 한 얀 브뤼겔의 그림과 달리 베르겐의 풍경 은 현실적이고 건실해 보였다.

짧은 터널을 한 번 지난 버스는 어느새 시내로 들어 와 있 었다. 복잡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아담한 도시이다. 잠깐 가더니 어느새 바다가 보였다. 그리고 버스 스톱 마지막이 호텔로 가는 정류장이었다. 알고 보니 유명한 관광지 브뤼 겐 한복판이었다. 버스는 오른쪽에 항구가 펼쳐진 큰길에 멈춰서 나를 내려 주었다. 운전기사 아가씨가 짐을 꺼내 주 면서 호텔은 저 길을 따라 언덕으로 올라 가라고 가르쳐준 다. 언덕 위에 예약하면서 사진에서 본 호텔이 서 있었다. 톤 호텔 로젠크란츠 (Thon Hotel Rosenkrantz).

언덕으로 올라가는 자갈길은 울퉁불퉁 거칠어서 가방 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. 롤러가 달린 가방 이지만 호텔에 도착할 때쯤이면 다 망가질 것 같았고, 무 엇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오지 않은 것이 약간 후회가 되었다. 하지만 노르웨이 공항버스를 타 보았고, 택 시비도 절약했다. 나는 씩씩하게 가방을 끌고 올라갔다.

생각보다 작은 호텔이었다. 언덕 위에 서 항구를 내려다보는 빨간 벽돌 건물이 다.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부티 끄 호텔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. 숨이 차 게 가방을 끌면서 들어온 나를 카운터에 서 있는 예쁜 아가씨 직원이 노르웨이 액 센트가 섞인 영어로 친절하게 맞아준다. 예약 기록을 살펴 보더니 305호실이라 고 하면서 카드 키를 내 주었다.

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 보라

색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났다. 305호실은 복도 끝 구석이 었다. 카드 키를 넣고 문을 열었다. 어찌된 일인가? 엄청나 게 크고 아름다운 방이 나타났다. 푸른 실크 벽지에 황금 색 커튼이 쳐진 넒은 방에는 커다란 더블 베드와 소파, 커 피 테이블, 안락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. 한 쪽 벽이 온통 창문인데 황금색 커튼과 그 안에 흰 망사 커튼을 제치니 창 너머로 브뤼겐 항구와 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였다. 언덕 위 에 있는 호텔 3층 코너, 바다가 보이는 크고 넓은 객실. 아 무래도 내가 예약한 방이 아닌 것 같았다. 나중에 프론트 에 내려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.

방은 더울 정도로 따뜻했다. 덴마크에서도 느꼈지만 북 유럽 사람들은 혹독한 자연을 극복하고 정말 완벽히 안락 한 삶을 구현한 것 같았다. 따뜻한 방에 들어와 앉으니 피 곤이 밀려와 눈도 못 뜰 지경이 되었다. 오늘 코펜하겐에서 새벽부터 서두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. 그러나 공 항에서부터 불통인 핸드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. 런던으 로 돌아간 R이 내가 베르겐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연락 오 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. 핸드폰이 불통인 사실을 알수 가 없으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? 덴마크에서 구매한 르 베라 카드 유심 칩이 여기선 안 터지는 것이 분명했다. 빨리 나가서 알아보기로 했다.





서비스

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/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, 신문 /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

재활치료

물리치료 / 작업치료 / 언어치료

피아노, 합창 하프연주, 빙고 기타 + 난타연주 생일파티, 아침체조 미술공작, 바디워십

텃밭 가꾸기 등

여가 특별 활동

www.buenaparknc.com

메디케어, 개인, 메디칼, HMO, PPO 취급합니다

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한국어: 562-240-3516

영어 : 714-828-8222 Fax:714-828-1467 8520 Western Ave. Buena Park, CA 90620

NO TAX 융자 전문

# 10% 다운 for 자영업자

- Up To \$750,000
- No Mortgage Insurance No First Home Buyer

**NO TAX** 

Up to \$726,500 크레딧 620 이상

**Mortgage Insurance** 

5% 다운 for 직장인

**NO TAX** 

30 Yr Fixed Conforming Loan/ Rate Effective As of 03/16/20 Rate Changes Daily/ APR 3.5%

### 25% 다운 for 2<sup>nd</sup>/투자용 홈

- \* 크레딧 640/\$1.5M \* Full Docs: 15% Down
- NO TAX

## 재융자 + Cash Out

- \* 직장인 620 at 85%
- \* 자영업 650 at 70%

**NO TAX** 

외국인 융자 30% 다운/ SBA. APT. **COMMERCIAL. CONSTRUCTION** 





Global 7 Lending H.Q. Office 1427 Lomita Blvd., #7, Harbor City, CA 90710 DRE #01707526 NMLS #1693221 Fax) 818-561-3970 g7spaces@gmail.com

**213**. **434**. **8669** 

**G7** 용자

**Fullerton Office** 

1303 W Valencia Dr., #CR Fullerton, CA 92833

#### Wilshire Office

3660 Wilshire Blvd., #1080 Los Angeles, CA 90010